

Issue Comment

2024. 8. 28

하이프 352820

어도어 신임 대표이사 선임 관련 코멘트

엔터/레저

Analyst 김민영

02. 6454-4884

minyoung.kim02@meritz.co.kr

어도어, 김주영 어도어 사내이사를 신임 대표이사로 선임

27일 하이브 산하 레이블 어도어는 이사회를 열고 김주영 사내이사를 신임 대표이사로 선임.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는 어도어 사내이사직 및 프로듀싱 업무를 유지. 이를 통해 어도어 내부 조직은 제작과 경영을 분리하게 됨. 어도어 측은 다른 모든 레이블에 적용되어왔던 멀티 레이블의 운용 원칙이었으나, 어도어만 예외적으로 대표이사가 제작과 경영을 총괄해왔음을 설명. 또한, 안건 통지, 표결 처리는 상법과 정관이 정한 절차에 따라 적법하게 진행되었다고 밝힘

이에 민희진 전 대표는 언론을 통해 의사와 관계없이 이루어진 일방적 해임 결의임을 주장. 민희진 전 대표의 법률대리인은 향후 논의를 거쳐 대응하겠다고 밝힘

하이브, 주주간계약 해지 확인의 소를 제기

하이브는 2024년 반기보고서를 통해 '당사는 당반기말 현재 종속기업인 주식회사 어도어의 지분투자와 관련하여 비지배지분 20% 일부에 대해 풋옵션을 부여하는 주주간 약정을 체결하고 있으며, (생략) 당사는 보고기간 말 이후 일부 주주를 대상으로 주주간계약을 해지하였고, 이와 관련하여 주주간계약 해지 확인의 소를 제기하여 계류 중에 있습니다.'는 내용을 공시함

지난 5월 30일 법원은 민희진 전 대표가 하이브를 상대로 제기한 의결권 행사 금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한 바 있음. 이후 기존 어도어 사내이사 2인은 하이브 측 3인(김주영 CHRO(최고인사책임자), 이재상 CSO(최고전략책임자), 이경준 CFO(최고재무책임자))으로 교체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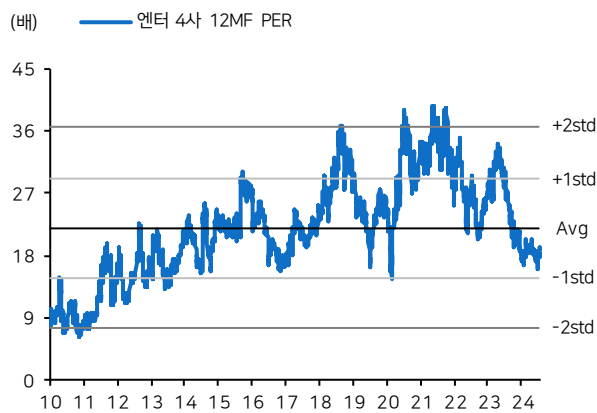
리스크 해소로 보기는 이르나, 제작-경영 분리를 통한 멀티레이블 시스템 보완 법원 결정에 대한 확인이 필요하며, 추가 소송에 따른 분쟁이 지속될 수 있어 완전한 리스크 해소로 보기는 어려움. 다만, 어도어 내부 조직도 제작과 경영을 분리해 멀티레이블 시스템을 보완했다는 점에서 긍정적임. 향후 해당 소송에 대한 법원의 판단이 관건. 주주간 계약이 해지될 경우, 연초부터 부각된 멀티레이블 시스템 관련 시장 피로도 및 리스크는 해소될 전망

그림1 하이브 반기보고서 내 재무에 관한 사항

(4) 연결회사는 당반기말 현재 종속기업인 주식회사 어도어의 지분투자와 관련하여 비지배 지분 20% 일부에 대해 풋옵션을 부여하는 주주간 약정을 체결하고 있으며, 일정한 조건이 충족할 경우에 한하여 거래상대방이 보유한 비지배지분 20% 전부를 매수할 수 있는 콜옵션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또한 연결회사는 주식회사 어도어의 지분투자와 관련하여 해당 비지배지분 20%에 대해 주주간 약정에 따라 우선매수청구권 및 공동매도청구권을 보유하고 있으며, 동시에 동반매각청구권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다만, 연결회사는 보고기간 말 이후 일부 주주를 대상으로 주주간계약을 해지하였고, 이와 관련하여 주주간계약 해지 확인의 소를 제기하여 계류 중에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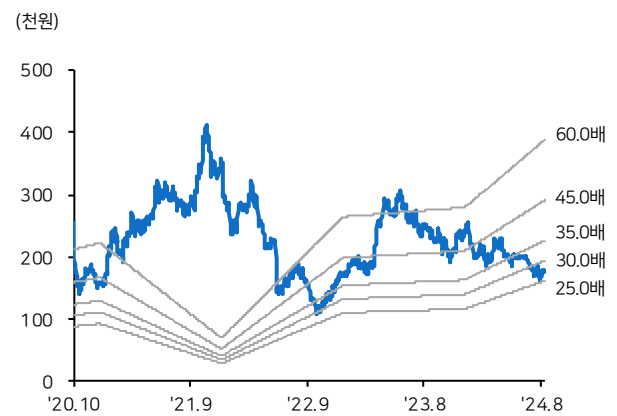
자료: Dart, 메리츠증권 리서치센터

그림2 4대 기획사(HYBE, JYP, SM, YG) 12MF PER 추이



자료: FnGuide, 메리츠증권 리서치센터

그림3 하이브 PER 밴드차트



자료: FnGuide, 메리츠증권 리서치센터

Compliance Notice

본 조사분석자료는 제3자에게 사전 제공된 사실이 없습니다. 당사는 자료작성일 현재 본 조사분석자료에 언급된 종목의 지분을 1% 이상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본 자료를 작성한 애널리스트는 자료작성일 현재 추천 종목과 재산적 이해관계가 없습니다. 본 자료에 게재된 내용은 본인의 의견을 정확하게 반영하고 있으며, 외부의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 없이 신의 성실하게 작성되었음을 확인합니다.

본 자료는 투자자들의 투자판단에 참고가 되는 정보제공을 목적으로 배포되는 자료입니다. 본 자료에 수록된 내용은 당사 리서치센터의 추정치로서 오차가 발생할 수 있으며 정확성이나 완벽성은 보장하지 않습니다. 본 자료를 이용하시는 분은 본 자료와 관련한 투자의 최종 결정은 자신의 판단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어떠한 경우에도 본 자료는 투자 결과와 관련한 법적 책임소재의 증빙자료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 본 조사분석자료는 당사 고객에 한하여 배포되는 자료로 당사의 허락 없이 복사, 대여, 배포 될 수 없습니다.